

배뇨 불편하고 피 섞여 나오면 요석증 의심을…



우리 강아지에게 혈뇨가(요석증)

혈뇨 원인은 요석증·방광염이 대표적 5~7세 암컷에 흔해… 식이·대사요인 등 재발위험 커 치료후 세심한 관리 필요 음수량 늘려 미세결석 배출할 수 있도록

지난달이었다. '빗짱' 이라는 이름의 강아지였는데 산책할 때 소변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찔끔찔끔 하고 피가 섞인 오줌(혈뇨)이 발견돼 병원을 찾았다. 나이는 5세, 중성화가 되지 않은 암컷 치와와였다. 복부촉진과 방사선 촬영, 초음 파 검사를 통해 지름3cm 가량의 방광결석을 확인 했고 방광의 대부분이 결석으로 채워져서 방광파 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. 이 결석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제거했고 , 빗짱이는 몇일의 회복시 간을 가진 뒤 건강하게 퇴원했다. 빗짱이의 경우 결석의 종류는 스트루바이트라는 것이었고 이 결 석은 대부분 요소분리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 하는데 알칼리소변, 식이요인, 유전적 소인이 관 련돼 있다. 대체로 심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아 결 석이 방광을 거의 폐쇄할 정도로 커질 때 까지 보 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이렇듯 피오줌을 보호자들이 발견하거나 핍뇨 (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찔끔찔끔 거리 는 증상)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

혈뇨(피오줌)는 말 그대로 오줌에 피가 섞여 나 오는 것이다. 혈뇨의 색깔은 커피색이나 콜라색 등 의 어두운 갈색계통이 있고, 선홍색이나 와인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. 출혈부위는 요도, 방광, 콩팥 등 상부, 하부요로 계통을 망라해서 생길 수 있다. 일반적으로 강아지에게서 생기는 혈뇨의 원인으로 는 가장 대표적으로 요석증과 방광염이 있으며 그 이외에 전립선염, 중독, 칸디다증, 원발성 상피소 체 기능항진증, 선천성 혈액응고 장애, 종양, 사구 체 신염, 외부적 원인에 의한 요도손상 등이 있다.

앞서 진료케이스를 예로 들었듯이 요석증에 대 해 알아본다.

요석증이란 콩팥 또는 방광 내에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인 결석이 형성돼 요로점막을 자극하고 손 상시키며 요로 혹은 요관을 폐쇄시키는 질환이다.

원인은 콩팥에서 배출되는 여러 결정의 양과 소 변의 PH, 소변의 농도 등 여러 물질에 의해 요결 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. 일반적으로 이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나 배출돼지지 않은 결정체에 의해 그 크기가 성장함으로서 만들어 지며, 마그 네슘암모늄인산염과 소량의 기질로 구성이 돼있는 스트루바이트가 요석증에서 결석종류의 60%를 차 지한다. 그 다음으로 칼슘옥살레이트와 요산암모 늄 요결석, 시스틴요결석 그리고 혼합형 요결석이 등이 있다. 일반적으로 5~7세 사이의 암컷개에서 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며 대체적으로 요로감염보 다는 식이요인, 대사요인, 가족요인이 많다.

요석증의 증상으로는 혈뇨와 배뇨장애, 빈뇨 등 이 있다. 또한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경우 증상들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고, 혹은 식욕부진, 허리부위 의 통증, 졸음증, 뻣뻣한 걸음걸이 등을 나타낸다. 소변감소증이나 무뇨증이 양측성 요관 결석증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작은 요결석은 소변을 보는 동안 요도로 들어가 요도를 폐쇄시킬 수도 있다.

요결석은 무기질의 구성과 크기에 따라 내과적 으로 또는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. 칼슘옥살 레이트 요결석과 인산칼슘 결석은 내과 요법으로 는 녹지 않아 외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. 그 외에 스트루바이트 요결석이나 요산욤요결석, 시스틴 요결석은 처방식 등을 사용해 녹일 수 있다. 하지 만 결석의 크기가 방광내에 많은 용적을 차지하고 있다면 외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. 요즘은 내시경 과 레이저를 이용해 비침습적으로 결석을 파괴하 고 배출시키는 시술도 도입돼 보호자들의 선택지 가 넓어지고 있다.

무엇보다 요석증은 재발의 위험성이 큰 질환이 므로 치료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. 음수량 을 늘려 오줌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소변을 통해 작은 미세결석을 배출할 수 있게 해야 하며, 정기적인 검사

를 통해 재발하 지 않았는지 확 인해야 하며 결 석이 생기기 쉬 운 음식을 피하 는 게 좋다.



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

영화觀

스타 이즈 본

청춘은 여름과 같고 스타는 그

여름의 별처럼 빛난다. 세상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미남미녀도 많 고 훌륭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도 적지 않다. 그렇다면 아름다운 외 모와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사람 은 청춘스타가 되는 것일까. 그것 은 아닌 것 같다. 사실 청춘스타 는 '느낌 적인 느낌' 과도 같은 뉘 앙스의 조어라서 예측하지 못한 감각의 영역에서 탄생하고는 한 다. '와 멋있어라든가 진짜 아름 다워' 같은 말도 나오지 않는, 자 연스레 입을 틀어막게 되는 순간 이를테면 '늑대의 유혹'에서 우 산 속으로 뛰어든 강동원이 나타 난 순간 '로미오와 줄리엣'에서 수족관 건너편의 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를 발견한 순간 '건축학 개론'에서 수지가 햇살을 맞는 그 순간에 청춘스타는 번쩍하고 황홀하게 태어난다. 이렇듯 배우 고유의 개성과 캐릭터의 완성도 가 만났을 때 스크린은 드물지 않게 은막의 스타를 관객 앞에 선보이고 관객들은 빛나는 많은 것들 중 진짜를 발견한 짜릿함에 환호한다.

박보영과 김영광이 주연을 맡 은 영화 '너의 결혼식'은 드물게 깔끔하고 진한 맛을 지닌 잘 만 든 로맨스 영화였다.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 라인과 두 주연 배우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 1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두 남녀 의 엇갈린 러브 타이밍을 그려낸 영화는 280여만 관객을 동원하 며 흥행에도 성공한 바 있다. 최 근 '너의 결혼식'을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 '여름날 우리'가 국내 극장가를 찾았다. 원작의 장점들 을 잃지 않고 여름이라는 계절감 을 풍성하게 더한 청량한 로맨스 영화인 '여름날 우리'는 보는 내 내 관객을 기분 상하게 만들지 않는 맑고 순한 맛의 영화이기도

도 매력적이지만 '여름날 우리' 는 명백히 허광한이라는 청춘스 아! 허광한이 있는데!' 그날 밤 타를 탄생시킨 작품으로 남을 것 이다. 로맨스 장르의 고전적인 설 정인 온달과 평강 공주 스토리의 변주이기도 한 영화는 덜컥 첫사



영화 '여름날 우리'

랑에 빠진 10대부터 마침내 첫사 랑과 작별하는 30대까지의 한 남 자의 감정선을 입체적으로 그려 간다. 허술하지만 든든한 남사친 다정하고 속 깊은 연인 그리고 실패와 후회로 낙담하는 동거인 에 이르기까지 시절의 변화에 따 라 변화하는 이 보통의 남자에게 배우 허광한은 빛나는 순간을 여 러 차례 안긴다. 소년의 얼굴과 청년의 몸, 돌진의 기세와 기다림 의 태도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어른의 멋까지 '여름날 우리'의 볼거리 는 거의 허광한의 거침없는 액션 과 섬세한 리액션에서 터져 나온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마치 수영 선수인 주인공의 직업처럼 허광한은 물 만난 물고기 같이 매끄럽게 캐릭터와 조우하는데 금방 타오르게 만들지만 쉽게 꺼 지지 않은 이 매력적인 배우를 보는 내내 나는 울고 웃었다. 영 화라는 예술에서 배우라는 붓의 흐름이 얼마큼 매력적인 흔적을 남기는지 가능하면 큰 스크린을 통해 확인해 보길 권한다. 좋은 것은 크게 보는 것이다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니 말이다.

'여름날 우리'를 극장에서 본 날은 공교롭게도 세찬 비가 내린 뒤 난데없이 불어오는 차가운 바 람이 맨다리를 훑고 지나가던 초 가을의 밤이었다. 예상치 못하게 많이 울어버린 탓에 얼굴이 벌게 져 있는데 어느 관객이 극장 계 단을 내려가며 '뭐야 한국 영화 랑 똑같은데?'라고 말하는 걸 듣 여자 주인공을 연기한 장약남 고는 작지만 육성으로 이런 소리 가 터져 나와 버렸다. '뭐가 똑같 스타는 탄생했고 나는 다시 사랑 을 하기 시작했다. 아주 늦은, 그 래 여름이었다.

<진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무브먼트 대표>



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



한동주 부 : 한창희 · 모 : 홍은조

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친족일동



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



한동주 부 : 한창희 · 모 : 홍은조

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사촌형제 일동

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



박희순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가 족 일 동

박영선 · 박희경 · 이옥향 이신성 · 김석환 · 김택자



서 기 관



김형섭

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올레테니스클럽

회장 채정병외회원일동